

소광제시장 "성숙"

무광도장 유행 따라 ... 94년 20%이상 신장

가구 및 가전제품 도장에 무광스타일이 유행함에 따라 소광제 수요가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부터 시작된 가구도장의 무광화바람이 인테리어 전반에 영향을 미쳐 가전제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료의 광택을 제거하는 소광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소광제 수요는 133만톤으로 93년대비 2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5년에도 이러한 성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광제 공급현황			
공급선	국내대리점	판매방법	비 고
Crosfield	유원화성	Offer, Stock	목공
Degussa	대구사코리아	Offer	목공, 플라스틱
Fuji-Silysia	OTC	Offer, Stock	목공, 플라스틱
Grace	신본기업	Stock	목공, PCM, 플라스틱
Mizusawa	유신산업	-	목공
Nippon Silica	강신산업	Stock	목공, 피혁
SCM	정하무역	Offer	PCM

소광제의 수요는 목공용이 전체 수요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가전용 소재로 PCM이 늘어나고 있어 PCM용 소광제시장이 대폭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M은 기존의 대표적인 그로스 유니트가 30 40%에서 30%이하의 저광택으로 변화되고 있어 향후 많은 양의 소광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소광제를 공급하는 기업은 11개 정도로 생산기업은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광제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후지실리시아로 국내 대리점인 OTC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gussa도 전체의 18%를 점유,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소광제의 수요패턴도 후방산업의 변화에 따라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목공용 도료는 투명과 유색의 비율이 40대60이었으나 최근에는 가구의 컬러화에 따라 유색 비율이 50%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광제도 색도를 해치지 않는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소광제는 합성실리카가 지니고 있는 수산기를 유기규소화합물에 의해 화학반응시킨 제품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소광효과 외에도 내후성, 내약품성, 내수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6/5>